시인의 마을

눈이 비가 되어 함지박 빙수처럼
내리던 포근한 신발장 앞이다

훅, 들어온 작은 공간엔 십 일번
고무신이 도도하게 반들반들 매
끈매끈하다

세상을 미치도록 하얗게 만든 교
정엔 비처럼 눈이 내려 축복이 쌓
인다

나름, 멋들어진 패션의 마침표는
깔 맞춤* 검정 슈트에 녹아 버린
지 오래다

오늘도, 이름 모를 검정 고무신 한
켤레만이 비처럼 눈이 되어 내린
다

- 박여범 시인
'검정 고무신' 전문 -

*깔 맞춤 : 옷이나 액세서리 따위를 비슷한 계열의 색깔로 맞추어 입거나 하는 것

‖ 시詩를 담다 ‖

학교 현장은 발열 체크로 시작되고 마무리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업식과 졸업식이 진행되던 그 날도 어김없이 반복되는 하루가 지나가 버렸다.

언제부터인가 신발장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녀석이 생겼다. 바로 검정 고무신이다. 십일(11)이란 숫자가 선명하다.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 검정 고무신이 더욱 눈에 들어왔다. 자세히 보니, 누군가 매일 먼지도 턴다. 나름, 각도 잡는다. 검정 고무신의 주인이 누구일까? 무슨 사연이 있을까? 이런저런 상상에 미소 짓는 시간이 정겹다.

어느 날, 우연히 눈에 들어온 검정 고무신 한 켤레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감사할 따름이다. 비가 눈이 되어, 함지박 빙수처럼 포근하게 내린다. 눈이 비처럼 세상을 덮어 버린 미완성 그림이다.

박 여 범

용북중학교 ·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사 설

메타버스의 미래

자율주행차가 가상현실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현재 애플, 구글, 테슬라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은 운전자가 전혀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 자율주행차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완전 자율주행차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엔 메타버스 열풍도 더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메타버스(metaverse)'는 초월, 상위 등을 의미하는 영어의 접두사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메타버스(metaverse)는 차세대 인터넷 시대를 주도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면서 게임, 엔터테인먼트, 음악, 콘텐츠 산업 등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미국의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이 1992년 발표한 SF 소설 '스노우 크래쉬(Snow Crash)'이다.

이 작품은 사회 조직이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의해 운영되는 21세기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한다.

이 작품에서 가상 세계를 '메타버스'라고 명명하고 개인을 대신하는 가상의 대역을 '아바타(avatar)'라고 명명했다. '메타버스'는 이후 정보기술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인터넷 기반 게임을 통해 그 실체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1993년에는 '메타버스' 라는 이름의 게임이 출시되었다. 2003년에는 '세컨드 라이프(Second Life' 라는 3D 가상 게임이 개발되어 수천만 명의 사용자가 가입했다.

메타버스는 과학소설이나 영화, 게임과 같은 대중적 장르를 통해 확산되었다. 메타버스 서비스 유형으로는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 등 4가지 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연동되어 새로운 사회문화의 기반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 기도회의 의미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세계 각국의 종교지도자들이 코로나19 극복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통일을 기원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이번 '제2회 신통일한국을 위한 구국구세 기도회' 행사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과 천주평화연합(UPF)이 공동 주최했다.

'100만의 기도가 비전으로' 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국제적 참석자들을 위해 7개 언어로 동시통역해 진행됐다. 통일합심기도에서는 남북 공동 수교 157개국을 대표하는 종교지도자들이 대립과 분단을 극복하는 '신한반도'를 기원했다.

종교와 교파를 초월한 종교지도자들은 통일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신통일한국의 '구국' 과 신통일세계의 '구세' 를 위해 나아갈 것을 결의했다.

한학자 총재는 "지금 하늘이 고대하고 인류가 염원하는 평화세계를 이뤄야만 하는 모든 종교들의 종점에 와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이나 기후변화로 천문학적인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속출하는 것을 보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모아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신통일한국의 비전은 인간 중심의 통일 운동의 한계를 넘어 한민족의 뿌리 되는 '경천애인', '홍익인간', '재세이화' 의 정신을 담았다. '애천(愛天)·애인(愛人)·애국(愛國)' 의 평화사상을 근간으로 하며 공생(共生)·공영(共榮)·공의(共義)' 의 실천 이념을 품고 있는 혁신적 통일론이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2월 11~13일에는 한반도 평화서밋이 개최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치열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미중 패권전쟁과 빈부갈증·성갈등·세대갈등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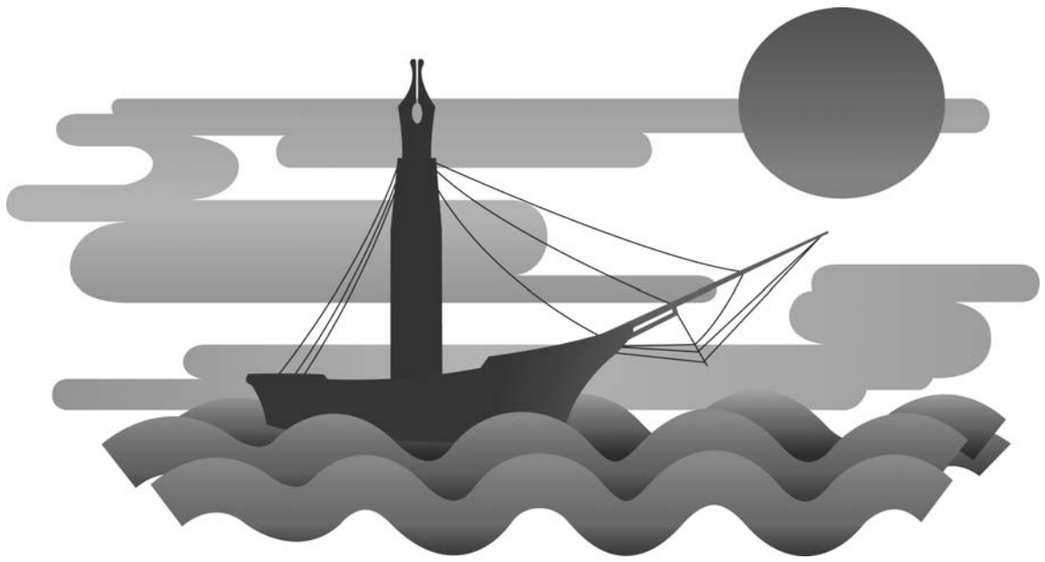
이런 상황에서 종교와 교파를 초월한 세계 종교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한 정신세계의 중요성을 외치며 집결했다. 우리 모두 화합해 한반도의 구원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할 때이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 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